Ⅰ. 주왕산국립공원 개관

Ⅱ. 주왕산의 역사와 문화자원
1. 경관자원
2. 역사ㆍ문화자원

□ 상의지구
① 대전사
② 보광전
③ 대전사보광전석조여래삼존상
④ 대전사명부전지장탱화
⑤ 대전사명부전지장삼존및시왕상
⑥ 대전사주왕암나한전후불탱화
⑦ 청송주왕산주왕계곡일원
⑧ 내원마을
⑨ 아들바위 전설

□ 월외지구
① 월외리
② 월외리사지
③ 달기약수터

□ 절골지구
① 운수암
② 주산지
③ 주산지비

Ⅰ. 주왕산국립공원 개관

주왕산(720.6m)은 우리나라 중앙부에 해당하는 태백산맥의 지맥에 위치하고 경북의 청송군과 영덕군 지역에 걸쳐져 있으며 1976년 3월 30일에 국립공원으로 지정 되었고 지정 면적은 총 107.425㎢에 달한다.
이 지역의 북서부에 태행산(933.1m), 대둔산(905m)이 솟아 있고 중앙부에 주봉격인 두수람(927.2m)등 평정봉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주능선과 금은광이 부근은 급경사의 지형으로서 외주왕 계곡은 기암이 용립해서 절경을 이루어 이곳 경관의 특색처럼 되어 있다.
이곳에는 뛰어난 자연경관 요소가 많은데 청학과 백학이 살았다는 학소대, 앞으로 넘어질 듯 솟아오른 급수대, 주왕과 마장군이 격전을 가졌던 기암, 주왕의 아들과 딸이 구경을 달 구경을 하였다는 망월대, 멀리 동해가 보이는 험준한 지형의 왕거암, 주왕이 숨었다가 숨진 전설의 주왕굴, 그리고 폭포, 약수 등 탐방객을 매료 시키는 곳이 많이 있다.
문화재로서는 약 1.300년전 신라 문무왕 12년(672년)에 창건한 대전사, 주왕의 딸 백련공주의 이름을 딴 백련암 등을 들 수 있다. 주왕산의 식생으로서는 신갈나무, 소나무 군락이 아름다운 경관을 더욱 빛나게 해 주고 있으며 멸종위기야생식물로 알려진 망개나무, 노랑무늬붓꽃, 둥근잎꿩의비름 등이 자생하고 있다.
주왕산국립공원은 대표적인 자연경관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주방계곡의 코스가 대다수의 탐방객이 찾고 있으며 가메봉과 주왕산, 장군봉을 등산하는 코스와 월외계곡, 절골계곡으로 횡단하는 코스도 많이 찾고 있다.





읽을거리

주왕전설의 유래

주왕산은 전설의 산이다. 주왕산은 '전설로 시작해서 전설로 끝난다'고 할 정도로 발길 닿는 곳마다, 눈길 가는 곳마다 전설이 살아 있다. 주왕산은 두가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주왕내기(周王內記)』에 따르면, 중국 당나라의 주도(周鍍)라는 사람이 스스로 후주천왕(後周天王)이라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당나라에 쳐들어갔다가 크게 패하고 신라로 건너와 주왕산에 숨었다. 이에 당나라가 신라에 주왕을 없애달라고 부탁하자 마일성 장군 오형제를 보내 주왕의 무리를 죽였다고 한다. 그 뒤부터 주왕이 숨었던 산을 주왕산이라 하였다.

또한 신라 37대 선덕왕이 후손이 없어 무열왕 6대손인 김주원이 왕으로 추대 되었으나 신라의 수도인 경주로 향하던 도중 큰 비를 만나게 되어 신라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때 상대등(현재 국무총리와 비슷함) 김경신은 김주원이 못오는 때를 이용해 자신이 왕위에 올랐다. 후에 이 일을 알게된 김주원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는 운명임을 여기고 주왕산에 은거하면서 살았다고 한다.

김주원의 아들 김헌창은 882년(헌덕왕 14년) 웅천주에서 발란을 일으키고 완산주, 청주, 사벌주등을 장악하여 나라 이름을 장안, 연호를 경운이라고 짓는데 결국 신라의 관군에게 패하고 웅천주에서 자살하게 된다. 자살하기전 김헌창 역시 주왕산에 숨어살게 된다.

반란을 일으킨 김헌창을 역사의 전명에 들어낼수 없어서 김헌창을 주왕이라는 사람이라고 빗대어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한다.



죽은 주왕의 넋을 달래기 위해 주왕암이 세워졌다.

Ⅱ. 주왕산의 역사와 문화자원

1.경관자원

구 분	경 관 자 원
산봉	왕거암(907m)주왕산(720m),금은광이(812m),가메봉(882m),대둔산(905m)
기암	기암, 아들바위, 장군봉, 만화봉, 병풍바위, 망월대, 급수대, 학소대, 시루봉 신선대, 별바위
계곡	주방(외주왕), 절골(내주왕), 월외, 주산지
폭포	제1폭포, 제2폭포, 제3폭포, 달기폭포
약수	상탕, 중탕, 하탕, 신탕, 성지탕, 천탕
동굴	주왕굴, 연화굴, 무장굴
기타	주산지, 내기사



가메봉 정상에서 바라본 일출의 모습이다. 하늘위에서 가메봉의 정상을 내려다 보면 사람 머리에 있는 가마의 모습을 닮았다고 하여 가메봉이라고 불린다.

2. 역사 · 문화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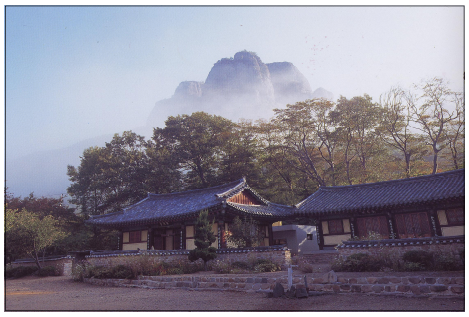
◈ 상의지구

① 대전사(大典寺)

| 주 소 :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200

| 창건연대 : 신라 문무왕 12년(672년), 의상대사

| 중 창 : 조선시대 1672년(현종 13년)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인 은해사의 말사이다. 672년(신라 문무왕 12) 의상(義湘)이 세웠다는 설과 919년(고려 태조 2) 눌옹(訥翁)이 창건했다는 설도 있다. 절이 있는 산과 절의 이름은 주왕의 설화에서 유래한다. 창건 이후 자세한 연혁은 전하지 않는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주방사(周房寺)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임진왜란 때는 사명대사 유정(惟政)이 승군을 훈련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조선 중기에 불에 탄 것을 다시 중창하여 오늘에 이른다. 부속 암자로는 백련암(白蓮庵)과 주왕암(周王庵)이 있다.

이 중 백련암은 주왕의 딸 이름에서 유래하며, 옛날에는 이 암자에 큰 종이 걸려 있어 아침 저녁으로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퍼졌다고 하나 지금은 걸려 있지 않다. 주왕암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주방사로 추정되며, 나한전과 가학루·산령각 등이 남아 있다.

주요 건물로는 보광전(普光殿)과 명부전·산령각·요사채 등이, 유물로는 보광전 앞 삼층석탑과 사적비·부도 등이 남아 있다. 이 중 보광전은 정면 3칸의 다포계 맞배지붕 건물로, 내부에 임진왜란 당시 이여송(李如松)이 유정에게 보냈다는 친필 서신을 목판으로 음각한 것이 보관되어 있다. 보광전 앞의 석탑은 근처에 흩어져 있던 석탑재를 짜맞춘 것이다.

절 오른쪽 밭에는 우물을 메운 자리가 남아 있는데, 이 우물에 얽힌 전설이 전한다. 본래 이 절에서는 부처에게 올리는 물을 매일 냇가까지 가서 길어오곤 하였다. 이를 귀찮게 여긴 승려들이 조선 중기에 앞뜰에 우물을 파고 그 물을 길어서 청수(淸水)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곧 불이 나서 전각이 불에 타고 말았다.

▣ 보광전(普光殿)

보물 제1570호



보광전은 1976년 중수 시 발견된 상량문에 의하여 그 건축 연대(1672년, 강희 11년 임자 5월초 119일, 현종 13년)가 밝혀져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조선 1672년(현종 13)에 중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건물 구조는 화강석 기단위에 화강석 초석을 놓고 약간 흘림이 있는 원주를 세워 구성한 앞면 3칸, 옆면 3칸의 건물이다. 지붕은 전면에만 부연을 단 겹처마의 맞배지붕이고, 구조는 2고주 5량 가구이며, 다포계 양식으로 외 2출목 3제공, 내 2출목 3제공을 이루는데 전면은 양설형이고 배면은 교두형으로 되어 있어 조선 중기 이후 목조건축양식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보광전은 건축연대가 명확한 조선중기 다포양식의 목조건물로서 공포양식 등에 있어서 중기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내부단청과 벽화는 회화성이 돋보이는 빼어난 작품으로 건축당시의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조선중기 불교미술의 중요한 자료로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충분하다.

대전사보광전석조여래삼존상



시도유형문화재 356호

대전사 보광전 석가여래삼존불은 조성연대(1685년)가 확실한 조선중기 대표적 석조여래 삼존불상이다. 두꺼운 법의, 구부린 어깨, 큰 두상의 비례미, 원만한 상호(相好) 등 조선시대 중기 불상의 특징을 고루 갖추고 있다. 석가불은 불교를 창시한 교주를 일컫는 것으로 열반에 든 지 수세기 후 신격화 된 것을 형상화하여 예배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항마촉지인자세로써 오른손은 아래로 향하고 왼손은 손바닥이 보이게 한 자세인데 석가불만이 지을 수 있으며 석가부처님이 마음을 항복받아 부처가 된 후 지신을 가리키면서 자신의 깨달음을 증명하라고 했을 때 지은 손이다. 중앙의 석가모니불의 좌우에 앉아 있는 협시보살은 일반적으로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과자비와 이치를 상징하는 보현보살로 추정한다. 목조대좌는 특이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세 마리의 사자상이 두 발을 들어올려 해학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조성 재질이 석조이므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조형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조선시대 보기 드문 석조여래좌상이다.

대전사명부전지장탱화



문화재자료 제468호

지장보살은 흔히 두건을 쓰고 석장을 집거나 구슬을 잡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 지장 탱화는 19세기로 넘어가는 새로운 특징을 잘 나타나 있는 조선후기 대표적인 작품이다. 중앙의 본존인 지장보살은 민머리에 구슬과 석장을 옆에 세우고 통견의 법의를 입고 손의 모습은 설법 및 교화의 수인을 하고 있다. 얼굴은 갸름하고 단아한 외형을 갖추었으며 투명한 두건을 쓰고 서있는 지장보살상 좌우에는 도명존자, 무독귀왕, 6대보살, 천동, 천녀가 등장한다. 신체적 비례미가 좋은 8등신상으로서 균형을 갖추고 있으며 색채가 선명하다. 지장보살의 머리에 원형의 두광, 신체에 키 모양에 가까운 신광이 둘러져 있다. 채색이 짙고 물감을 두껍게 칠하는 경향이 현저한 지장보살의 도상에서 두건을 쓴 자태와 머리를 깍은 승형이 있는데 조선조 전기에는 두건형이 많았고 후기에는 승형이 우세하게 된다. 따라서 이곳 명부전의 지장보살상은 조선전기의 양식을 따르고 지장탱화의 지장보살은 후기의 흐름을 따른 것을 알 수 있다.

대전사명부전지장삼존및시왕상



문화재자료 제 469호

조성연대(1703년)가 확실한 조선중기의 대표적인 명부세계 존상들이다. 본존인 석조지장보살좌상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으며 상호(상好)는 원만하고 두꺼운 법의 구부린 어깨, 몸체에 비해 큰 두상의 비례미 등 조선시대 중기의 불상 특징을 고루 갖추었다. 시왕상은 지장보살도에 등장하는 상으로써 흔히 염라대왕을 말한다. 사람이 죽으면 염라대왕이 지은 죄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중국에서 더욱 발전하여 10대왕으로 변형되었다. 명부전 시왕상은 석고로 만들었으며 높이가 69cm가량의 낮은 상으로 조선시대 불교미술의 아담한 조형미를 보여준다.

대전사주왕암나한전후불탱화



문화재자료 제 470호

조성연대가 1800년으로 확실한 조선후기의 후불탱화이다. 이 불화는 1800년경을 전후하여 과장되고 변형되는 표현이 대두되던 시기로 액자형 화면에 본존을 중심으로 각 형태가 경직되어 있다. 중앙의 본존인 석가모니불은 우견편단의 법의를 입고 손의 모습은 항마촉지인이며 얼굴은 갸름하고 단아한 외형을 갖추고 있다. 본존 좌우에는 문수, 보현, 미륵, 제화갈타, 관음, 지장, 약왕, 묘음보살 등 석가모니 8대보살과 가섭, 아난 두 제자상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본존 좌우에 문수와 보현보살이 사자와 코끼리를 타고 있는데 그 표정이 해학적이며 제작기법이 뛰어나고 문양이나 필선이 세련된 조선후기 독특한 나한전 후불탱화이다.

청송주왕산주왕계곡일원



명승 제11호

주왕산(주왕산, 721m)은 태백산맥의 남단에 위치하며 그 주위에는 600m가 넘는 고봉이 12개나 솟아 있다. 암벽으로 둘러싸인 산들이 병풍처럼 이어져 석병산이라고도 하며, 산세가 웅장하고 4계절의 경관이 수려하다. 주왕산 일원의 지질은 풍화와 침식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백악기 유천층군의 중성 내지 산성 화산암류로 되어 있다. 연꽃 모양을 한 연화봉과 만화봉, 주왕이 무기를 감추었다고 하는 무장굴(하식동), 신선이 놀았다고 하는 신선대와 선녀탕 그리고 제1, 제2, 제3 폭포 등은 경승지로서의 가치가 뛰어나다. 주왕산이란 이름은 신

라시대에 주원왕(김주원을 이름)이 임금의 자리를 버리고 수도하였다는 전설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하고, 중국의 진나라에서 피신하여 온 주왕이 이곳에 은거하였다고 해서 불렸다고도 하는데, 산봉우리와 암굴마다 주왕의 전설이 얽혀 있다. 주왕산은 심산구곡을 이루고 있어 동 · 식물도 다종다양하게 분포한다. 포유동물 46종, 조류 35종, 곤충 474종이고 식물이 393종이다. 특히 수단화, 회양목, 송이버섯, 천연이끼 등은 주왕산의 특산식물로 유명하다.

내원마을



내원동 입구 돌탑전경

내원마을터는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와 영덕군 지품면과 경계에 접하는 곳에 있으며 주왕산 3폭포에서 동쪽으로 약 1.2km 떨어져 있다. 내원마을이란 유래로는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에서 가장 안쪽에 있다고 하여 안 내(內)자를 붙여 내원마을이라 불렀다고도 하며 조선시대에 부동면 상의리 윗마을에 내원암이 들어서면서 내원동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어찌됐든 임진왜란(1592~1598) 당시 산 아래 마을 주민들이 계곡 상류쪽으로 피난해오면서 마을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일제강점기 목탄 생산이 본격화되면서부터 주민이 늘기 시작하여 한때 100여 가구가 거주하기도 했다. 한국전쟁이 발발 이전부터 빨치산의 위협으로 주민들이 떠나기 시작해서 전쟁 발발 직전에는 10여 가구로 줄어들었으나 한국전쟁 후 다시 떠났던 토박이들이 찾아들면서 번창하였다. 매년 정월대보름이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기도 했다.
마을의 전성기는 1970년대였다. 당시 이곳에는 주왕산초등학교 내원분교(1970.3~1980.2, 79명 졸업)가 있는 규모였으나, 불편한 교통과 전기가 들어가지 않은 오지(오지)마을로 쇠락하다, 2007년 마을은 없어지고 그 터만 남게 되었다. 1980년대 탐방객들이 늘어나면서 내원마을은 '전기 없는 오지마을로 널리 알려지기도 하였기에 옛 향수를 더듬는 탐방객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아들바위 전설



주왕산 상의지구 주왕계곡 입구에서 100여미터 위쪽 계곡내에 있으며, 뒤로 돌아 가랑이 사이로 왼팔로 던진 돌이 바위위에 얹히면 아들을 낳는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는 바위로 아들을 못 낳는 여인들의 한을 풀어준다고 한다. 높이 3~4m, 한면이 약 5m의 사각형 모양으로 보는 위치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을이면 아들바위를 스쳐 지나가는 여울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 월외지구



월외리 전경

월외리(月外里)

대둔산과 태행산으로 둘러싸인 산촌마을로, 고개와 골짜기가 발달한 곳이다. 월명산 밖에 있다 하여 월외리라 하였다. 자연마을로는 월외, 댕대이, 대평, 도토매기, 절골마을 등이 있다. 월외마을은 본 리가 시작된 마을로, 지명유래 또한 월외리의 그것과 같다. 댕대이마을은 태행산 중허리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칭해진 이름이고, 대평마을은 큰 들에 자리한 마을이라 하여 불리게 된 이름이다. 도토매기마을은 지형이 도투마리처럼 된 고개 밑이 된다 하여

칭해진 이름이다.

월외리사지(月外里寺址)

월외 2리 '너구동' 마을에서 동북쪽으로 2.5㎞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이곳은 주왕산국립공원 내부인데, 동북쪽으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청송군과 영덕군의 경계가 되는 능선이 동남-서북으로 지나간다. '너구동' 마을 서북쪽에 형성된 '절골'계곡을 따라 800m 정도를 가면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절골'마을 터가 나오고, 이곳에서 다시 동북족 계곡을 따라 1.7㎞ 정도를 가면 절터가 있다. 이곳은 주변지역에 비해 경사가 완만한 편이고, 절터는 계단모양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앞쪽에는 높이 90㎝ 내외의 석축이 일부 남아 있다. 주변에 기와조각이 흩어져 있다.

달기약수터



달기라는 약수터의 명칭은 약수터가 위치한 곳의 옛 지명이 청송군 부내면 달기동이라 하여 달기약수라 불렀다고 한다. 매년 봄 4·5월이면 약물을 먹는 사람이 약효가 더하기를 비는 용천제를 지내왔으나, 이제는 그 명맥이 끊어졌다 속칭 달기약물이라 한다. 이 약수의 특성은 빛과 냄새가 없고, 아무리 많이 마셔도 배탈이 나지 않으며, 마신 즉시 트림이 자주 나는 점이다.

약물을 그릇에 담아두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탄산맛이 줄어 그 맛이 약해지며, 설탕을 타면 사이다맛과 비슷하게 된다. 또 이 물로 밥을 지으면 철분 때문에 색깔이 파랗고 찰밥이 된다. 한 시간에 60ι의 약물이 솟아나는데 사계절 그 양이 동일하며, 아무리 가물어도 양이 줄어들지 않고 아무리 추워도 얼지 않는다. 효능은 빈혈·위장병·관절염·신경질환·심장병·부인병 등에 특효가 있다 하여 각처에서 모여드는 사람들로 연일 장사진을 이룬다.

보통 하탕에 많이 모여드는데 골짜기를 올라감에 따라 신탕·중탕·상탕이 있다. 달기약수의 유래는 조선 철종 때 금부도사(禁府都事)를 지낸 권성하(權成夏)가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이곳 부곡리에 살면서, 동리사람들을 모아 수리공사를 하다가 바위틈에서 솟아오르는 약물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가 이상한 물을 보고 얼른 약수임을 알고 물맛을 보았더니 트림이 나오고 뱃속이 편안하였다고 한다. 이후 위장이 불편한 사람들이 애용하기 시작하여 약수터로 개발하였다.

달기폭포(達基瀑布)



달기약수탕에서 월외계곡을 따라 약 4㎞ 거슬러 올라간 곳에 있으며, 월외폭포라고도 한다. 높이 11m로 폭포 아래 소(沼)는 명주꾸리를 다 풀어도 바닥에 닿지 않을 만큼 깊다고 하며 이곳에서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서 용소라고 불린다. 주왕산 제1폭포가 여성에 비유되는 것에 비해 남성에 비유될 만큼 물줄기가 힘차다. 폭포 어귀에 접어들면 폭포 너머로 태행산(933m)에 걸린 구름이 손에 잡힐 것처럼 보이고 주왕산 등산로가 이어진다

너구동

행정구역상으로는 청송읍 월외 2리에 속하며 달기폭포에서 1.5㎞ 가량 상류 쪽으로 들어가 있다. 너구동은 월래 사이동(四耳洞)이라고 불렀는데 네 귀퉁이가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마을 앞에는 생바위가 있는데 이곳은 네 개의 산줄기와 네 개의 물줄기가 만나는 보기 드문 명당이라 한다. 생바위는 분지를 거쳐 새바목으로 가는 등산로 입구에 있으며 바위 밑에는 기도를 한 흔적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월폭(月瀑)이라 부르기도 하였으며 임ㅂ진왜란 때는 의병들의 은거지가 되기도 하였다.

일제 시대 때는 목탄 생산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다. 1970년대에는 마을이 번창하여 50여 가구가 살았으나 화전민 이주 사업과 이농 현상 등으로 가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현재는 7가구 정도가 살고 있다.

◈ 절골지구



절골이란 이름은 옛 골짜기에 절(節)이 있었다고 하여 절골이라고 부른다

옛 절터

주왕산에는 지금은 그 자취만이 남거나 아예 흔적조차 없이 문헌상으로만 전해지는 절터들이 많다. 옛날의 화려하였던 불교 수행지로서의 명성은 기록으로만 전해지고 반야암, 원각암, 재일암, 만서암, 불당암, 원통암, 내원암, 적도암, 도솔암, 만수암, 십수암, 월명암, 학소암 등 많았던 암자는 19세기를 전후하여 모두 없어졌다.

운수암(雲水庵)

절골에 있었던 암자이다. 주왕사적의 기록에 의하면 840년에 김범문이 창건하였으며 1700년(숙종 26)에 소실되어 중건하였고 1868년(고종 5)에 다시 소실되어 문희상(文禧上) 스님이 중건하였다. 이 암자에서는 847년부터 851년까지 통효 대사가 김범문과함께 수행하였으며 889년부터 897년까지는 낭공 대사, 낭원 대사 등 고승들이 김범문의 제자가 되어 수행하였다.

8.15 전까지는 승려들의 기도 도량이었으나 해방 이후 이곳이 빨치산의 활동 지역이 되면서 절의 평화가 위협받게 되었다. 결국 한국전쟁 발발 직전 정부의 소개 방침에 의해 강제로 철거되어 천년의 역사와 함께 목탁 소기와 종소리가 사라져 버렸다. 지금은 절터와 고목나무, 기와 조각만이 숲 속에 묻혀 있다.

주산지(注山池)



주산계곡에 있는 저수지로 1720년(경종 원년) 8월에 착공하여 이듬해 10월에 완공하였다. 하류 지역의 가뭄을 막기 위한 것으로 주산계곡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호수가 되었다. 특히 호수 주위에는 고목 왕버드나무가 물 속에 늘어서 있어 호수의 아름다움을 더한다.

주산지비(注山池碑)



비는 주산지 북쪽 끝과 인접한 암반 위에 세워져 있다. 비좌는 별도로 만들지 않고 바위에 홈을 내고 비를 세웠으며, 옥개석은 팔작지붕 모양이다. 비는 주산지 축조와 관련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비신의 앞면에는 '李公提堰成功頌德碑 乾隆三十六年辛卯十月日立(이공제언성공송덕비 건륭삼십육년신묘십월일립)', 뒷면에는 '康熙五十九年庚子八月日始役辛丑十月畢役(강희오십구년경자팔월일시역신축십월필역)'이 새겨져 있다. 비문의 내용으로 보아 건립년도는 1771년이다.(전체높이 102㎝, 비신높이 80㎝, 비신폭 33.5㎝)